

## 20세기 초 재중 한인 전병훈의 이상사회론\*

이대승(전주대)\*\*

I. 들어가는 말

II. 근대 중국의 대동사상과 전병훈의 이상사회

III.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과 이상사회 정부

IV. 이상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V. 나가는 말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8S1A6A3A01045347).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과 한국기독교철학회의 공동 학술대회 《경계 밖의 인간 무리》(2023.11.04.)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 초 록

이 글은 20세기 초 재중 한인 전병훈의 이상사회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훈은 중국 근대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펼친다. 그는 전통 대동사상의 상고주어나 근대 대동사상의 진보주의 역사관과 달리, 자신의 시간관·역사관과 국제사회 정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명이 극치에 이른 이상사회가 2백년 이내 도래할 것으로 여긴다. 그는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을 통해 이상사회에 갖추어야 할 정부 형태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상사회 정부 형태로서 제시한 ‘세계통일공화정부’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중국 근대 대동사상을 논한 강유위의 시각과 유사하다. 하지만 강유위와 달리 종신제 선출직으로서 세계정부 총통을 논하고, 세계정부 인사들의 도덕성 구비와 도교 내단학 수행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병훈은 경제·사회 측면에서 정전과 균산을 통한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데 이는 중국 근대 대동사상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정치 시스템 측면에서 제시한 ‘공화 헌법의 예치’는 동양의 예치와 서양의 공화, 민주, 입헌의 정치철학적 요소가 조제(調劑)된 전병훈만의 독특한 사유다.

전병훈은 동서고금 정치철학의 조제를 통해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꿨다. 그는 ‘조선과 중화’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동서고금의 사유를 조제하여 ‘경계 너머’의 사유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철학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 대동사상, 이상사회론

## I. 들어가는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는 서세동점의 물결에 의해 전근대 전통의 군주정은 점차 무너지고 입헌군주정, 공화정, 사회주의 정부 등 다양한 정부 체제를 모색한다. 서세동점에 더해 한국인들은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망국의 아픔까지 겪는다. 1910년 한일병탄 전후로 상당수 한인은 교육과 독립운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다. 그 가운데 독립운동 등을 위해 수많은 한인이 이주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생활하는 ‘경계 밖 무리’로서 재중(在中) 한인은 중국 내에서 한인사회를 형성하며 일제로부터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민족운동을 펼친다. 재중 한인 디아스포라는 국제 정세와 민족의 독립 그리고 다가올 세상을 논하며 새 시대의 정부 형태를 설계한다. 그 과정에서 재중 한인은 각자의 지향에 따라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이상사회를 꿈꾸게 된다.<sup>1)</sup>

활동 무대가 중국인 만큼 이상사회에 대한 재중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유는 일정 정도 근대 중국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중국 지식인들 역시 서세동점의 시기에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며 중국의 장래를 설계했다. 이들은 망국의 위협에서 벗어나 어떻게 부강한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이상사회로서 어떠한 사회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가장 큰 사상적 흐름은 ‘진화론’, ‘민족국가론’, 그리고 사회주의를 포함한 ‘이상사회론’이다.<sup>2)</sup> 근대 동아시아 이상사회론은 강유위(康有爲, 1858~1927)에 의해 본격적인

1) 청조부터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의 이주 실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춘선, 『재중 한인 이주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8을 참조할 수 있다.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과 관련해서는 손염홍,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역사공간, 2010, 신주백, 「1920, 30年代 北京에서의 韓人 民族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이연도,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 산지니, 2018, 22.

논의가 시작된 이후 다양한 논의가 제시된다.<sup>3)</sup>

20세기 초 ‘경계 밖 무리’로서 재중 한인이 지향하던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는 중국 근대 이상사회 담론의 자장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다. 재중 한인의 이상사회론은 중국 근대 이상사회론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 그들과 다른 독자적 사유를 전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초 북경에서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동서융합의 독자적인 철학을 토대로 새로운 이상사회론을 제시한 재중 한인 전병훈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병훈은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 조선과 중국 북경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관서 지역에서 유학자로 이름을 떨치면서 의금부 도사에서 정3품 통정대부까지 관직생활을 했지만, 일제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고종이 강제 폐위되자 1907년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중국 강남 일대 중국인 명사들과 친교를 맺고 광둥 나부산에서 도교 내단학을 연마하다가 1913년 북경으로 이주하여 ‘정신철학사’를 건립해 운영하면서 중국 북양 정부 및 고국의 인사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1920년에 동서고금의 사유를 융합하여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을 편찬했다.<sup>4)</sup>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는 최초의 『천부경』 주석과 함께 정신·심리·도덕·정치철학에 대한 동서고금의 논의와 이에 대한 그 자신의 철학적 시각

3) 강유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대동설을 춘추공양학의 삼세설과 결합시켜 서양의 유토피아 사상에 비견되는 중국적 이상사회론으로 재탄생시켰다. 자신의 정치 구상을 대동의 이상에 대입하여 서술한 『대동서』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유토피아적 사유 형태와 체계를 지닌다. 전통 대동사상이 근대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강유위에 의해서다. 상동, 60-71.

4) 전병훈은 이항로(李恒老, 1792~1868) 문인인 박문일(朴文一, 1822~1894)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했다. 젊어서 유학자로 이름을 떨치면서 1892년(36세)에 의금부 도사로 벼슬길에 오른 이후 1904년에는 정3품 통정대부까지 오르지만, 국경개혁과 독립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다 좌천되어 양덕군수(1904)를 거쳐 부령군수(1905)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을사조약 체결(1905)과 고종의 강제 폐위(1907)가 진행되자, 1907년 10월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망명한다. 그는 1908년 상해를 통해 금릉으로 이주하여 강남 일대 중국인 명사들과 친교를 맺고, 이후 광둥으로 건너가 나부산에서 고공성을 만나 도교 내단학을 연마한다. 그리고 1913년 북경으로 이주하여 ‘정신철학사’를 건립해 운영한다. 이 시기 서양철학을 접하고, 유불도와 서양철학의 융합을 시도하여 1920년 『정신철학통편』을 편찬한다. 북경에서 그는 이승희·신채호·이상설 등을 비롯한 여러 고국인사들과 교류하는 한편, 북양정부의 중국 정·관·학계 인사들과도 친교를 맺으며 활동하다가, 망명지 북경에서 1927년 71세 일기로 일생을 마친다. 전병훈 인생역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김성환, 『우주의 정오』(소나무, 2016), 1091-1143 참조.

이 제시되어 있다. 그는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는 주요한 유학자로 활동하며 관직까지 지냈지만, 중국 망명 이후 유학의 틀에서 벗어나 도교 내단학을 수련하고 서양철학을 접하면서 철학적 시각을 확장해갔다. 그는 이를 통해 ‘조선과 중화’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동서고금의 사유를 조제(調劑)하여 ‘경계 너머’의 새로운 철학을 기획했다. 그는 『정신철학통편』, 「정치철학」편에서 동서의 정치철학을 논하면서 세계가 장차 통일되어 영구평화를 이루는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며, 「예운」의 대동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바탕하여 도래할 이상사회에 쓰일 헌법으로서 ‘세계공화정부헌법’을 제시한다. 그의 이상사회론은 동서고금의 정치철학 요소를 조제한 것으로 중국 근대 이상사회론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탐구는 한국 근대 지성사 연구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정치철학의 문제를 반추하는 데도 일련의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계공화정부헌법’을 중심으로 「정치철학」 편에 나타난 전병훈의 이상사회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고찰한다.<sup>5)</sup> 이를

5) 전병훈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박종홍과 금장태의 개괄적 연구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는 이대승, 「20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동서양 심(理)학 융합의 방식-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 『심리철학』 분석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인간이해』, 흐름, 2022, 28-29쪽 참조. 전병훈의 개괄적인 사상과 한국 근대 지성사에서 그의 위상에 대해서는 금장태의 「서우 전병훈의 정치철학」(『한국 근대사상의 도전』, 전통문화연구회, 1995)과 홍원식의 「전병훈과 동·서 철학의 회통」(『동도관의 변화로 본 한국 근대철학』, 예문서원, 2016) 등에서 다루었지만 여전히 소략한 편이다. 나아가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는 전문적인 연구 없이 전병훈의 철학을 다루는 과정에서 간략히 다루진다. 한편 전병훈의 생애와 저작 및 『정신철학통편』에 나타난 전병훈 사상 전모에 대해서는 김성환의 「우주의 정오」(소나무, 2016), 『정신철학통편』 완역서로는 임재우의 「완역 정신철학통편」(인일담, 2021)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외 근대 전환기 도교 전통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전병훈 사상을 분석한 김형석(2016), 『정신철학통편』에 보이는 동서 철학 접면 양상을 고찰한 한정길(2019), 사상사적 맥락에서 전병훈의 서양 번역서 독해방식을 분석한 소진형(2022), 전병훈 정치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지론의 의미를 분석한 이대승(2023), 전병훈 철학의 핵심 개념이자 방법론인 ‘조제’에 대해 분석한 김성환(2023), 정약용 경제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병훈의 예지론과 정치사상을 논한 백민정(2023) 등의 최근 연구는 전병훈 연구가 다방면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형석, 「근대전환기 도교전통의 모색-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보이는 근대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2, 2016, 김성환, 「전병훈의 조제론 연구-탈경계의 정신문명을 향한 철학적 모색」, 『도교문화연구』 59, 한국도교문화학회, 2023, 백민정, 「전병훈 『정신철학통편』의 예지론과 정치사상-정약용 경제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9, 한국철학사연구회, 2023, 소진형, 「조선 지식인의 서양 번역서 독해방식: 전병훈 『정신철학통편』의 사례를 중

위해 먼저 이상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서양의 유토피아론과 중국의 대동사상, 그리고 전병훈의 이상사회론의 차이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상사회가 도래할 때 행해야 할 헌법으로 제시된 전병훈의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병훈이 그린 이상사회 정부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이상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분석한다. 맺음말에서는 재중 한인 전병훈 이상사회론이 지닌 의의를 고찰하며 글을 마친다.<sup>6)</sup>

## II. 근대 중국의 대동사상과 전병훈의 이상사회

서양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는 ‘유토피아(Utopia)’다. 이 단어가 이상향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쓰이게 된 것은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 소설 『Utopia』(1516년)로부터 말미암는다.<sup>7)</sup> 여기서 ‘유토피아’는 ‘아무 데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Nusquama]’을 뜻하는 동시에 ‘이상적으로 좋은 곳[Eutopia]’을 뜻하는 용어로서,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람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sup>8)</sup> 토머스 모어는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상상의 세계로서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서양 유토피아 사상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현실 비판의 척도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

심으로, 『한국사상사학』 70, 2022., 이대승, 「20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예치론-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54, 2023., 한정길, 「서우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나타난 동서 철학 접변 양상, 『동서사상의 회통』, 동과서, 2019.

6)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정신철학통편』 원문은 1983년 간행된 명문당 영인본을 저본으로 한다. 전병훈 저,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3.

7) 이종수 편저, 『유토피아: 낙원에 대한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 다산출판사, 2017, iii.

8) 토마스 모어가 1515년에 이 책을 지을 때 제목을 라틴어로 아무데에도 없는 곳을 뜻하는 ‘Nusquama’라 하였고, 이후 라틴어식 이름을 그리스어식 이름인 ‘Utopia’로 바꾸었다. 이후 1518년 신판을 출판할 때 좋은 곳을 뜻하는 ‘Eutopia’라는 말이 들어간 풍자시를 덧붙였다. 이 때문에 ‘아무데에도 없는 곳’이라는 유토피아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 ‘이상적으로 좋은 곳’이라는 의미까지 뜻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 지음, 주경철 옮김, 『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07, 158-160, 170-171,

너지만, 그의 유토피아는 “역사의 지평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초역사적 모델’로서 정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천상의 한계를 지닌다.<sup>9)</sup>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함께 서구 유토피아론에 큰 영향을 끼친 소설로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 1850~1898)의 『Looking Backward, 2000-1887』(1888년)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시간여행을 통해 미래 사회 제도를 그린 공상과학 소설로서 출간 이후 당대의 유토피아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sup>10)</sup> 중국어로는 1894년 『백년일각(百年一覺)』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강유위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sup>11)</sup> 벨라미 역시 모어와 마찬가지로 상상을 통해 꾸며낸 세계로서 유토피아를 그린다.

서양 유토피아 모델은 모어나 벨라미의 작품에서처럼 현실 비판을 위한 매개체로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공상적 이야기를 통해 표현된다. 이 때문에 현실 비판 기능은 있지만, 현실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는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대동사상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이상사회 모델은 도덕의 실현을 통해 정치와 경제적 이상을 이루어 낸다는 점에서 서양의 모델과 차이를 지닌다.<sup>12)</sup>

동아시아에서 이상사회에 대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대동사상으로 말해진다. 진정염(陳正炎)·임기담(林其鎔)에 따르면, 전근대 시기 중국의 대동사상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도가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이나 유가의 대동(大同)(『예기』, 「예운」편)과 같이 고대 원시사회를 동경하는

9) 선우현, 「끝없는 발전의 도정으로서 유토피아-새로운 유토피아론의 모색」, 『시대와 철학』 11(1), 2000, 137-138.

10) 에드워드 벨라미의 『Looking Backward, 2000-1887』의 내용은 김혜진 번역서(2014)를, 그리고 이 책이 당대 유토피아 문학에 끼친 영향은 손세호 논문(2008)을 참조. 손세호,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면서』를 뒤돌아보며」, 『미국사연구』 27, 2008. 에드워드 벨라미 지음, 김혜진 옮김, 『뒤돌아보며 : 2000년에 1887년을』, 아고라, 2014.

11) 『Looking Backward, 2000-1887』는 영국인 선교사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 1845~1919)에 의해 원작의 1/20 분량의 요약본으로 번역되어 1891년 12월부터 1892년 4월까지 『萬國公報』에 「回頭看記略」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이는 서양의 소설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번역된 사례로서, 리처드의 번역은 1894년 『百年一覺』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김미연, 「유토피아 ‘다시 쓰기’-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중역들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0, 2020, 193-194.

12) 이연도, 「대동과 유토피아: 강유위 사상의 특색」, 『한국철학논집』 18, 2009, 248.

것, 둘째는 불교의 정토(淨土)나 도교의 선경(仙境)과 같이 종교에서 취하는 형식으로서 비인간 세계를 추구하는 것, 셋째는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와 같이 소설가나 시인 작품에 보이는 대동사회 모형, 넷째는 맹자가 구상한 정전제(井田制)와 같이 정치가나 사회 개혁가들이 제시한 사회구상, 다섯째는 명대 하심은(何心隱)이 창립한 취화당(聚和堂)처럼 서양 공상사회주의와 유사한 사회공동체 실험, 여섯째는 당대 황소(黃巢)·왕선지(王仙芝)의 균평(均平)처럼 역대 농민 봉기에서 제시된 행동강령이나 구호다.<sup>13)</sup>

전근대 시기 중국 대동사상은 6가지로 분류되지만, 그 속에는 대체로 착취 반대, 재산 공유, 만인의 노동, 천하를 공공의 기물로 여기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동사상은 대체로 현실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하나는 현실 개혁 방안을 설계하여 미래에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유년기에서 정신적 위로를 찾는 것이다. 전자에서 형성된 대동사상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탐색이 많고, 후자에서 형성된 것은 원시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다.<sup>14)</sup>

전근대 시기 중국의 대동사상은 근대의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부각된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에 근대 대동사상의 물꼬를 튼 이는 강유위로, 그는 『예기』, 「예운」편의 내용을 전면에 가져와 대동사상을 펼친다. 진정염·임기담의 분류에서처럼 「예운」에 제시된 대동은 고대 원시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 「예운」의 대동사상에는 현실 개혁의 시각보다는 고대 원시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하는 상고주의(尙古主義)적 시각이 깔려있다. 강유위는 「예운」의 대동사상을 전면으로 가져오지만 「예운」의 상고주의적인 시각

13) 陳正炎·林其鏞 지음, 이성규 옮김,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9, 46-47. 이 책의 원 제목은 “中國古代大同思想研究”로, ‘大同思想’이 ‘유토피아’로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14) 陳正炎·林其鏞, 위의 책, 46-48.

과 달리 대동을 미래사회의 이상으로 제시한다.<sup>15)</sup> 그가 중국 전근대 대동사상과 다른 새로운 이상사회를 그릴 수 있었던 까닭은 토머스 모어나 벨라미의 소설과 같은 서구 유토피아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말해진다.<sup>16)</sup>

강유위가 대동사상의 물꼬를 튼 이후 중국 전역에서 대동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다. 급진적 혁명과, 무정부주의와 기타 정파, 사회주의자들, 나아가 온건한 자유주의와 5·4운동 후기 등장한 신유가 등 문화보수주의자들까지 20세기 초부터 각 정파와 학파들이 경쟁적으로 ‘대동’의 기치를 든다. 이러한 현상은 서세동점으로 인해 수천 년 유지해 온 가치관이 상실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이상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근대 중국의 대동사상은 당시 중국에 전해진 사회주의 사조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들게 된다. 이에 근대 중국의 대동사상은 ‘진보주의’, ‘평등’, ‘공리(功利)’ 등의 내용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면서 사회주의 요소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sup>17)</sup>

재중 한인 전병훈이 중국 북경에서 활동하던 20세기 초는 이상과 같이 근대 중국의 대동사상이 기치를 들 때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전병훈은 강유위를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의 이상사회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예운」 대동설을 논하면서 “근세의 명유 강유위가 『대동서』를 지어 (대동사상을) 창명했다고 한다. 그 학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15)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여러 사상이 혼재해 있는데, 이는 서양 사상으로 전통 유학을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강유위의 대동사상과 관련해서는 이연도, 「대동과 유토피아: 강유위 사상의 특색」, 『철학논집』 18, 2009, 송영배, 「강유위 인의 철학과 대동 유토피아」, 『철학연구』 48, 2013, 김지연, 「강유위의 대동사상-『대동서』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23, 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6) 이연도에 따르면, 강유위 『대동서』의 내용과 형식은 당시 번역된 벨라미의 『백년일과』의 영향을 받았다. 『대동서』의 사유제 폐지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내용과 같고, 국가의 경계를 폐지하고 세계 공정부(公政府)를 건설한다는 구상은 오원(Robert Owen)과 푸리에(Charles Fourier)의 생각과 같다. 또 『대동서』에 묘사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믿음은 서구 유토피아 서적의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인(仁)을 대동사회 실현의 근본으로 보고, 도덕과 교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구 유토피아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연도, 앞의 논문(2009), 252. 이의 김미연 역시 강유위가 청말에 번역된 벨라미의 소설을 통해 중국 고유의 이상향과는 차별화된 개념의 서구 유토피아를 접함으로써 근대 중국에 필요한 새로운 이상사회를 제시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미연, 앞의 논문(2020), 194-195.

17) 전통 대동사상과 사회주의 사조가 결합하여 등장한 근대 중국의 대동사상의 특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연도, 앞의 책(2018), 36-48 참조.

서원이 크도다!”<sup>18)</sup>라고 한 말을 고려할 때, 『정신철학통편』(1920)을 집필할 당시에<sup>19)</sup> 강유위 대동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전병훈 이상사회론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예운」의 대동설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다.<sup>21)</sup>

전병훈은 「정치철학」편에서 동양과 서양의 정치철학을 다루는데, 「예운」의 대동설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각각 논하는 부분에서 공자와 칸트의 사상이 은연중 서로 부합한다고 말한다.<sup>22)</sup> 대동설과 영구평화론처럼 전병훈 역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영구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꾼다. 그는 미래에 세계통일공화정부가 설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 시대에 쓰일 헌법으로서 다음 장에서 후술할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世界一統共和政府憲法]’ 9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의가 공자와 칸트의 논의에 입각한 것임을 명시한다.

이상 9조는 이상적인 주제넘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의 공자와 서양의 칸트가 모두 앞서 이런 이상론을 저술하여 내게 전해

18) 「政治哲學」, 제14장, 「聞近世名儒康有爲演, 著『大同書』以唱明之. 未知其說何如, 而其願則弘哉.”

19) 전병훈은 1917년 봄 이전에 북경에 정신철학사를 세우고 『정신철학통편』 구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서언」 일부가 탈고된 1918년 11월에 대략적인 내용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해에 전병훈은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전해 받고, 이듬해(1919년)에 그 주석을 달아 『정신철학통편』에 덧붙이고 11월에 관련 서문을 썼다. 그리고 1920년 2월에 발행허가를 받고 9월에 『정신철학통편』을 간행했다. 『정신철학통편』 집필과 관련하여 김성환, 앞의 책(2016), 1177-1182 참조.

20) 강유위의 『대동서』는 1884년에 구상되었고 이후 1913년 『不忍』 잡지에 갑부·을부 두 권이 발표되었으며, 1919년 上海長興書局에서 갑부·을부가 합쳐진 단행본이 『大同書』라는 명칭으로 출판되었다. 이후 10부 전체는 제자들의 정리를 거쳐 1935년에 上海中華書局에서 출판되었다. 갑부·을부 단행본이 간행된 1919년에 전병훈은 『정신철학통편』 집필을 완성해가던 시기였기에 그 책을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동서』 관련사항은 송영배, 「강유위 인의 철학과 대동 유토피어」, 『철학연구』 48, 2013, 93. 康有爲撰, 姜義華·張榮華編校, 『康有爲全集』 第7集, 中華人民大學出版社, 2007, 2 참조.

21) 이외 전병훈은 대도의 작용을 논하는 도가사상 역시 이상사회론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22) 「예운」의 대동설은 「정치철학」편 제14장,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제36장에서 거론된다. 여기서 전병훈은 공자의 대동사상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은연중 부합하는 내용이라 말하고 있다. 전병훈 저,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3, 283-286, 329-332.

준 것이다. 어찌 어리석고 우둔하다고 하겠는가! ‘오회정중(午會正中)’이 또 어찌 멀겠는가? 2백 년이 되기 전에 하늘은 필시 축을 돌릴 것이 틀림없도다!<sup>23)</sup>

전병훈은 이상사회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공자와 칸트의 논의에 입각한 것임을 밝히면서 이상사회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그가 그리는 이상사회는 「예운」의 대동설과 같이 고대 원시사회를 기리는 상고주의 적인 이상향이나 모어나 벨라미와 같이 도래치 않는 ‘꾸며낸 이야기’로서의 미래사회가 아니다. 이상사회는 2백 년이 되기 전에 도래한다.

이상사회의 도래에 대한 전병훈의 확신은 그의 시간관·역사관과 연관된다. 그는 이상사회가 도래할 시기를 ‘오회정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오회’를 말한 것은 우주의 역사가 원(元)·회(會)·운(運)·세(世)의 주기로 이루어짐을 논한 소옹의 원회운세(元會運世) 설에 따른 것이다. 전병훈은 하나라 우왕 즉위 6년에 한 주기의 오회가 시작되었다고 여기고, 이로부터 5천여 년이 지난 현시대에 오회정중의 때가 도래한다고 여겼다.<sup>24)</sup> 하나라 시기에 시작된 ‘오회’는 인류문명의 시작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회’의 때가 정 중앙에 이른 ‘오회정중’은 문명이 극치에 이른 때가 된다.<sup>25)</sup>

이상사회의 도래에 대한 확신의 또 다른 이유는 전병훈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된다. 전병훈은 20세기 초 전기·통신·선박·차량이 만국에 교통하며 사회 균산설(均産說)이 성행한 것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될 조짐이 열린

23) 「政治哲學」, ‘世界一統共和政府憲法’, “以上九條可謂理想之僭見也。然東之孔子, 西之康德, 皆先著此理想之論, 以貶我者也。尙何以爲迂愚哉! 午會正中, 亦何遠乎哉? 然不及二百年, 而天必轉軸無疑乎!”

24) 원회운세설에서 1원은 12회(129,600년), 1회는 30운(10,800년), 1운은 12세(360년), 1세는 30년에 해당한다. 1원에 해당하는 12회에서 양이 자라나는 전반부는 子會에서 巳會, 음이 자라나는 후반부는 午會에서 亥會에 해당하며, 午會는 1원에서 양이 극성한 정오에 해당하는 시기가 된다. 전병훈은 하나라 우왕 즉위 6년이 갑자오회의 한 주기에 들어간다고 여기고, 현시대에 오회가 정 중앙에 오게 되는 때에 이른다고 여겼다. 오회정중과 원회운세설과 관련하여 김성환, 앞의 책(2016), 85-88 참조.

25) 「政治哲學」, [제12장~제13장 사이] ‘結論’, “전병훈, 앞의 책(1983), 282.

것으로 보았다.<sup>26)</sup> 또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확산되던 국제 정세 속에서 군비축소와 평화유지책 등이 논의된 1907년 제2차 헤이그 회담에 대해, 전병훈은 이를 칸트 영구평화론의 맹아가 드러난 사건으로 여겼다.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와 평화 유지 조치 등의 협의를 위해 파리평화회의(1919~1920)가 개최되고 그 결과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는데, 전병훈은 이 회의가 영원히 박애하고 선(善)을 즐기는 인도주의를 실행하고, 국제연맹의 건립이 이상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겼다.<sup>27)</sup> 그는 이처럼 ‘오회정중’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여기고 이상사회에서 활용할 헌법으로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을 제시한다.

### III.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과 이상사회 정부

전병훈은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을 믿으면서 이때 행해야 할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世界一統共和政府憲法]’(이하 ‘세계정부헌법’) 아홉 조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28)</sup>

1. 세계대총통은 반드시 각국의 공평한 선거로 뽑는다. 선출된 총통은 국경을 없애고, 세계를 한 집안으로 돌보는 것을 직무로 한다. 우선 대

26) 상동.

27) 「政治哲學」, 제36장(‘康德設一民主國于宇內永久太平哲理’). 전병훈, 앞의 책(1983), 331.

28) 전병훈, 앞의 책(1983), 338-340. 「政治哲學」, ‘世界一統共和政府憲法’, “一. 世界大總統, 必以各國公選. 選舉總統, 破除國界, 家視宇內爲職務. 先行代議士制, 而漸次從公議舉, 亦可.

二. 尊重人道. 總統及在位人員, 德禮律身, 德禮教化, 刑期于無刑.

三. 舉世各國公議以寢兵輯和爲主旨.(定兵額, 立和睦, 別具條例.)

四. 各國皆用獨立平等資格, 建立一統中央政府.

五. 特設公議院, 議員及政府任員皆自各國極選才德英俊而派送.(另具一條例可行.)

六. 人道以樂天安命爲重, 公益利物爲要. 凡各執務需世之人, 並致修養成眞性命之道, 乃眞利益也. 物慾則眞戕害, 此誠萬世太平之基本也.

七. 法律是道德之制之於外者. 採用世界最良法律, 咸以道德爲準.

八. 大總統居任年期, 勿用限年之制, 以盡其才德. 各國會, 監督總統及國務員, 而論劾其過失.

九. 公田均產. 當用井田之制. 設院養民(老弱廢疾失所無歸者), 專以體天生物而成物之德, 定爲世諦.”

의원제[代議士制]를 시행하다가 점차 공의(公議)에 따라 선거하는 것 또한 좋다.

2. 사람의 도리[人道]를 존중한다. 총통 및 당국자들은 덕(德)과 예(禮)로 자신을 다스리고, 덕과 예로 세상을 교화하며, 형벌은 형벌이 사라짐을 기약한다.

3. 세계 각국이 논하는 공의에서는 군축과 화합을 주된 취지로 삼는다. (병력을 한정하고 화친을 확립하는 별도의 조례를 갖춘다.)

4. 각국이 모두 독립·평등의 자격을 적용하여 통일중앙정부를 건립한다.

5. 공의원(公議院)을 특설하고, 의원 및 정부 임원은 모두 각국에서 재덕을 겸비한 영재를 엄격히 선발해 파견한다.(별도로 하나의 조례를 갖춰 시행할 수 있다.)

6. 사람의 도리는 천명(天命)을 즐기며 편안히 여김[樂天安命]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익을 증진하고 만물을 이롭게 함[公益利物]을 핵심으로 한다. 각각의 사무를 행하며 세상에 쓰이는 인재들이 참됨을 이루고 수명을 보존하는[成真住命] 도를 아울러 수양하면 곧 참된 이익이다. 물욕은 참으로 참혹한 해악이 된다. 이는 진실로 만세 태평의 기본이다.

7. 법률은 도덕을 밖에서 제어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법률을 채용하되, 모두 도덕을 표준으로 한다.

8. 대총통의 재임 기간은 연한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용치 않게 하여 그 재능과 덕성을 다하도록 한다. 각국이 모인 회의에서 총통 및 국무원을 감독하고, 그 과실을 논핵한다.

9. 공전(公田)으로 균산(均産)하는 것은 마땅히 정전제를 사용한다. 기구를 설치해 인민(노약자, 불치병자, 무연고자)을 부양하고, 오로

지 하늘을 본받아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이루는 덕을 세상의 진리로 정한다.

전병훈은 「정치철학」편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기술한다. 동양 파트에서는 중국의 유가와 도가, 한국의 정치철학을 다루면서 동양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덕치, 예치, 정전, 균산 등을 제시하고, 서양 파트에서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에서부터 루소, 몽테스키외, 칸트 등의 근세 정치철학 나아가 19세기 전후의 최신 정치철학까지 다루면서 서양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민권, 민주, 공화, 헌법, 지방자치, 삼권분립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동서 정치철학에서 도덕이 중시됨을 지적하고, 동서가 서로의 정치철학의 핵심을 취하여 조제해야 함을 역설한다. ‘세계정부헌법’은 이러한 「정치철학」편의 결론에 앞서, 동서양의 정치철학 본론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이다.<sup>29)</sup>

‘세계정부헌법’은 대동과 공공성을 논한 공자의 대동론<sup>30)</sup>, 큰 도의 작용으로 대일통을 논한 도가사상<sup>31)</sup>, 그리고 세계연맹과 영구평화를 논한 칸트의 영구평화론<sup>32)</sup> 등을 중심으로, 동서고금 정치철학의 핵심만을 조제하여 만든 이상사회의 헌법이다. 그 내용은 이상사회의 정부 체제와 구성 그리고 이상사회에서 행해질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고, 먼저 전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정치철학」편은 크게 동양과 서양의 정치철학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은 중국 유가(1~21장)·도가(22~27장)와 한국(28~30장)의 정치철학, 그리고 서양은 고대(31장), 근세(32~36장), 최근(37장)의 정치철학으로 나뉜다. 그리고 결론에 앞서 본론 마지막에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이 기술되어 있다. 「정치철학」편의 전체 구성과 내용은 이대승, 앞의 논문(2023), 300-305 참조.

30) 「예운」은 현재 한나라 때 저술로 여겨진다. 반면 전병훈은 전통적인 시각에 따라 공자의 저술로 여기고, 「정치철학」편 제14장에서 대동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전병훈, 앞의 책(1983), 283-286.

31) 전병훈은 도가사상을 중시하여 「정치철학」편에서 제24장에서 제27장까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제25장에서 대도의 작용을 논한 노자의 사상을 중시하면서, 공자의 대동정치와 칸트의 세계통치가 노자가 대도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이 되어야 비로소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동, 304-305.

32) 전병훈은 「정치철학」편 제36장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중요하고 다루고 있다. 상동, 329-331.

세계정부헌법 1·3·4·5·8장 내용에 따르면, 전병훈이 그리는 이상사회 정부는 세계 각각의 국가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자격으로 연합체를 이루어 대표를 선출하는 공화민주 체제 정부, 즉 ‘세계통일공화정부’(이하 ‘세계정부’)다. ‘세계정부’의 대표인 대총통은 각국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재능과 덕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연한을 제한하지 않는 종신제를 시행한다. 또 나라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처럼 세계정부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의기구[公議院]를 만들고, 세계정부 임원과 대의기구 의원은 재능과 덕성을 겸비한 각국의 엘리트로 구성한다. 세계 각국이 모인 연방 회의에서는 세계정부 행정 수반인 총통의 임무 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그 과실 여부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 각국이 논하는 공론은 군비축소와 상호화합을 핵심 사안으로 삼는다.

세계 각국이 연합체를 이룬 공화정 체제의 이상사회 정부는 군비를 축소하고 전쟁을 그치며 화합과 평화를 지향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는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총 6조)에서 평화 조약의 조건, 국가 상호 간의 관계, 상비군 폐지, 분쟁 관련 국채 발행 폐지, 국가간 상호 불간섭, 전쟁 시 해서는 안 될 적대행위 등을 논한다. ‘확정조항’(총 3조)에서는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그리고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함을 논한다. 그 외 ‘추가조항’(총 2조)에서 영구평화의 보증과 영구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을 다루고, 부록에서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논한다.<sup>33)</sup> 전병훈이 접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비록 양계초(梁啓超,

33)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6개, 확정 조항 3개, 추가조항 2개 사안을 논하고, 부록에서는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 간의 대립, 그리고 공법의 선형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 간의 조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영구 평화론』, 서광사, 2013, 13-90 참조.

1873~1929)에 의해 축약·번역된 것이지만, 공화정 체제의 국가 연방제 구성을 통해 평화 유지를 논하는 시각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34)</sup>

영구평화를 위해 칸트가 제시한 국가 연방제는 일종의 세계주의를 논한 것이다. 20세기 초 중국 근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국가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상사회론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국가 건설을 우선시하며 중시했지만, 중국 근대 대동사상의 물꼬를 튼 강유위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은 세계주의를 중시했다.<sup>35)</sup> 국가 연방제를 제시한 전병훈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강유위를 위시한 근대 중국 이상사회론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전병훈의 세계정부는 강유위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강유위는 인류가 이상사회인 대동세계에 도달하는 데에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 각국이 서로 평등하게 연맹하여 공의회(公議會)를 제정하고 공의정부(公議政府)를 형성하는 거난세(据亂世) 시기다. 다음으로 연방제를 이룬 세계 각국이 각자 자치하다가 대정부체제(大政府體制)에 의해 대정(大政)이 통일되는 승평세(升平世) 시기다. 이때 세계정부는 공정부(公政府)로서 각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총통이나 총리는 없고 의장을 둔다. 마지막 방국이라는 칭호와 국경을 없애고, 각자 주군(州郡)

34) 전병훈이 수록한 사항은 양계초가 번역한 내용이다. 그는 일본의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1847~1901)이 번역한 칸트 관련 저술을 읽고 『新民叢報』에 1903년부터 1904년까지 「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을 수록했는데, 여기에 칸트의 영구평화론 내용이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양계초는 칸트 철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유식 불교와 양명학 등 중국 전통철학을 활용해 칸트 철학을 재해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제란, 「양계초 사상에 나타난 서학 수용의 일단면-유식불교를 통한 칸트의 재해석」, 『한국사상과 문화』 4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황종원·허재영·김경남·강미정,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 경진출판, 2019, 191-221 참조. 「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은 梁启超 著, 「飲冰室文集之十三」, 『飲冰室合集』 第一冊, 中華書局, 1988, 47-66 참조.

35)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국가주의와 세계주의를 둘러싼 논쟁이다. 강유위와 유사배 등은 세계주의를 지향한 반면, 손문과 장병린 등 혁명파는 민족국가 건설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다. 이연도, 앞의 책(2018), 47-48.

을 세워 공정부에 의해 통일되는 형태의 태평세(太平世) 시기다. 이때는 국명과 국경이 없이 공정부에 의해 하나로 통치되며 국가도 제왕도 없으며 모든 이가 평등한 시기의 대동세계다.<sup>36)</sup>

반면 세계 연방 정부라는 이상은 같지만, 전병훈이 제시한 세계정부는 각국이 나라를 유지한 채 연방을 이루고 선거를 통해 총통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강유위와 크게 다르다. 특징적인 점은 각 국가로 이루어진 대의기구가 세계정부 총통을 감독하고 그 과실에 따라 탄핵한다는 조항을 두긴 하지만, 그 재능과 덕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총통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종신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세계정부 총통이 각국의 선거로 뽑힌 선출직으로서 대의기구의 견제를 받는다는 점은 서구 정치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덕으로 자신을 수양하며 덕과 예로 다스리는 종신제 총통이라는 점은 동양 전통의 성왕 군주라는 이상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병훈의 이상사회 체제에서 총통 종신제와 함께 특징적인 점은 정부 엘리트들의 도덕성 구비와 도교 내단학 수행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먼저 도덕성과 관련하여, '세계정부헌법' 2·5·6조에서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세계정부 임원과 입법부에 해당하는 대의기구[公議院] 의원 모두 각 나라의 엘리트를 선발해야 하며, 선발된 엘리트들은 재능뿐 아니라 덕성도 함께 갖추어야 함을 역설한다. 세계정부 임원과 대의기구 의원은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를 존중하고 덕과 예로 자신을 다스려야 하며, 이들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사명[天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여기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듯 전병훈은 세계정부 인사들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시각을 보이는데, 이는 근대 중국에서 유행한 사회진화론이나 공리주의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인다.

36) 국가체제와 관련된 사항은 『대동서』 일부에서 상세히 논해지고 있다. 강유위 지음, 이성에 옮김, 『대동서』, 을유문화사, 2006, 151-261.

전병훈이 그리는 이상사회는 본질적으로 도덕 문명이다. 그는 동서고금의 도덕철학을 다룬 「도덕철학」 편에서 당대 유행하던 공리주의와 사회진화론을 비판하면서 도덕을 이상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익을 논하는 서양의 공리주의가 공리(功利)와 권리(權利)를 다투는 폐해의 근원으로 흐른다고 비판한다.<sup>37)</sup> 그리고 당시 학술계의 환영을 받는, 생존경쟁의 자연선택과 우생열패를 논하는 사회진화론 역시 공리와 강권(強權)이 자라도록 인도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론은 취하고 버릴 것을 알아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도덕을 익히고 실천하여 도덕이 밝아지면 공리와 강권의 설이 자연스럽게 물러난다고 강조한다.<sup>38)</sup> 그래서 사람마다 도덕을 실천하면 군대는 물론 경찰과 법률 또한 사라진다고 말하면서 “도덕이 인류가 대동하는 태평세의 기본[道德爲大同太平世之基本]”이 됨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빈말의 이상[空言理想]”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것으로서, 「도덕철학」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 증거가 된다고 역설한다.<sup>39)</sup> 전병훈이 이처럼 도덕성을 이상사회의 핵심 요소로 보는 것은 전통적인 유학자로서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성 강조보다 더 특징적인 점은, 전병훈이 공리·권리나 물욕이 아닌 ‘참된 이익’으로서, 본성을 찾고 생명을 기르는 도교 내단학 수행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는 『정신철학통편』, 「서론」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공자의 대동론이 “빈말의 이상”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참된 이익’은 성인과 신선이 되는 것으로서 전쟁 종식과 영구평화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시황, 한무제, 나폴레옹 같은 영웅호걸이 권리나 공명 등과 같은 욕심 가운데 불사(不死)에 대한 욕망이 가장 심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37) 전병훈은 기본적으로 벤담의 공리주의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합치한다고 보는 조화의 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익을 논하는 설은 결국 功利와 權利를 다투는 폐해의 근원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본다. 「道德哲學」, 제9장. 전병훈, 앞의 책(1983), 229.

38) 「道德哲學」, 「總結論」. 전병훈, 앞의 책(1983), 246.

39) 상동.

불사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사회 엘리트들이 도교 내단법을 제시한 자신의 책을 읽어 지혜는 열리고 이익에 대한 욕망은 점차 사라져 “신선과 진인으로 가는 계단[仙眞之階]”에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 그는 이를 “욕망으로 욕망을 제어하는[因欲制欲]” 것이라 말하며, 세계의 종전평화와 통일의 서광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sup>40)</sup>

‘세계정부헌법’ 제6조에서 “물욕은 참으로 참혹한 해악”이지만 “참됨을 이루고 수명을 보존하는 도”를 수양하는 것은 ‘참된 이익’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참된 이익’으로 거론된 진(眞, 참나)과 명(命, 생명)의 수양은 바로 신선과 진인으로 이끄는 도교 내단법이다. 전병훈은 30~40대에 의금부 도사로 시작하여 통정대부까지 지낼 정도로 유학자로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그는 50대에 중국으로 망명한 이래 도교 내단학 수행을 통해 도를 성취하는 깊은 경지를 이루고, 『정신철학통편』의 「정신철학」 편에서 참나를 이루고 생명을 보존하는 도교 내단 수행법을 상세히 다루었다.<sup>41)</sup> 도덕성 구비와 함께, ‘공리’와 ‘권리’와 다른 ‘참된 이익’으로서, 도교 내단학을 이상사회 엘리트들이 행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점은 전병훈 이상사회론의 독창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 IV. 이상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세계정부헌법’에서는 이상사회 정부 구성과 함께 이때 행해질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거론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논한 「정치철학」 편에서 상세히 다루지는데, 동양 부분에서는 전통

40) 『精神哲學通編』, 「緒論」. 전병훈, 앞의 책(1983), 23-25.

41) 전병훈은 「정신철학」 편에서 도교 내단법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룬다. 그는 여기서 참나를 이룬 성인이자 신선으로서 군주를 ‘겸성(兼聖)’이라 일컬으며 이를 이상적 인간으로 여기는데, 이는 유가의 내성·외왕과 도가의 진인·신선의 이상을 아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철학」 편에 상세한 분석은 김성환, 앞의 책(2016), 217-306 참조.

시기 사료에서 민주제, 공화제, 입헌제에 부합했던 내용, 그리고 서구가 본받을 만한 정치제도로서 동양의 정전제, 덕치, 예치 관련 내용이 제시된다. 서양 부분에서는 민권, 민주, 공화, 헌법, 지방자치, 삼권분립, 도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다. 전병훈은 동·서가 서로의 장점을 취해 조제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동양은 서구의 민주, 공화, 헌법 등을, 서양은 정전제, 균산제, 예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sup>42)</sup> 더불어 동서양이 서로의 장점을 취해 각각의 정치가 원만히 발전하여 하늘을 본받아 인민을 중시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는 것에 세계의 영구평화와 대동 통일의 근본이 있다고 여긴다.<sup>43)</sup>

이상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은 ‘세계정부헌법’ 2·7·9항에서 간략히 언급되는데, 제2·7항의 내용은 정치 측면에서 예치를, 제9항은 사회·경제 측면에서 균산과 약자 부양을 말하고 있다. 먼저 정치 시스템과 관련하여, ‘세계통일정부’는 세계 각 국가가 연합체를 이룬 공화정부이기에, 이상사회 정부는 세계정부와 각국 정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정치철학」에서 서구의 민주, 공화, 헌법, 지방자치 등의 가치가 중시된 만큼, 이상사회의 각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공화정 체제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은 전병훈은 동아시아 전통시기의 덕치·예치를 중시하여, 도래할 미래에 시행되어야 할 정치제도로써 ‘예치’를 논한다는 점이다.

“예는 국가를 경영하고 사직을 안정시키며, 일반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후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sup>44)</sup>라는 『좌전』의 말처럼, 전통 시기의 ‘예치’는 예를 통해 개인에서부터 사회,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를 지칭하는 개

42) 「정치철학」편의 전반적인 내용 분석은 이대승, 앞의 논문(2023), 299-305 참조.

43) 「政治哲學」, ‘總結論’, 전병훈, 앞의 책(1983), 340.

44) 『左傳』, ‘隱公十一年’, “禮, 經國家, 定社稷, 序民人, 利後嗣者也.”

념이다.<sup>45)</sup> 동양 유교 전통에서는 예를 통해 개인의 수양과 국가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전병훈은 “동아시아의 정치제도가 요·순으로부터 하상을 거쳐 주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찬연하게 크게 완비”<sup>46)</sup>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화된 ‘덕치’·‘예치’의 도덕 정치를 펼쳐 형벌을 사용치 않고 멈춘 사람은 오직 주공뿐이라고 보면서 동아시아 정치철학을 논함에 있어 “주공을 사표[師則]”로 삼고,<sup>47)</sup> 『주례』의 일부 내용을 「정치철학」편에서 비중 있게 다룬다.

전병훈은 『주례』의 내용 가운데 학교 교육, 인재 선발, 관직 등급 등을 거론하는데,<sup>48)</sup> 이 중 주공의 예치로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례』의 지방행정 제도 관련 내용이다. 그는 「정치철학」에서 예란 시대에 맞게 변통하여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주례』의 지방행정 제도 내용에 토대를 둔 ‘예치’의 구체적 사항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행하는 일종의 도덕 정치로서, 전병훈은 이러한 예치가 서양의 지방자치제와 서로 표리가 된다고 여긴다. 아울러 그가 제시한 ‘예치’ 속에는 죄과에 대한 벌을 집행하는 형벌 제도가 들어가 있지만,<sup>49)</sup> 형벌 제도는 형벌을 쓰지 않은 상태에 이르기를 기약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병훈이 동아시아 예치의 사표로서 제시한 주공의 예치는 도덕적 교화를 통해 인민들이 저절로 도덕 질서를 지킴으로써 형벌이 사라지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라 할 수 있

45) 고영진, 「조선 시대 예치의 형성과 구조」, 『전통 예교와 시민 윤리』, 창계, 2001, 134-136 참조.

46) 「政治哲學」, 「緒論」, “惟東亞之政治制度, 自堯舜歷夏商而至周, 始乃粲然大備.”

47) 「政治哲學」, 「結論」(12~13장 사이), “東亞之最文明德禮之至治, 以致刑措不用者, 惟周公而已. 故今編此篇, 以周公爲師則, 將作宇內刑措之曙光者, 乃編者之至願正鵠也.”

48) “第十章. 學校教育賓興之制哲理”, “第十二章. 周禮任官之制哲理” 등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49) 일반적으로 ‘예치’는 ‘법치’와 대비되는 것으로 형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예는 도덕규범으로서 성격뿐 아니라 강제규범으로서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예는 통치계급 내부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각 계층간의 신분과 특권 및 재산상속 제도 등을 규정하고, 서민 계층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는 행위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예’는 ‘법’과 양립불가하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적 성격을 지니고 강제규범으로서 기능 역시 수행한다. 도덕 규범과 강제 규범으로서 성격으로서의 ‘예’에 대해서는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 출판부, 1998, 169-177 참조.

다.<sup>50)</sup>

예치는 법가의 법치와 달리 왕도정치의 구현 혹은 성왕 군주에 의한 교화를 수행하는 전통 시기 주요 통치 방법이다. 이러한 예치는 근본적으로 전통 전제군주정의 신분제 사회에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교화하기 위한 정치 수단인 만큼, 인민 각각이 주권을 가진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여기서 전병훈의 예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주목된다. 그는 요·순·주공이 “도덕 문명을 계도한 입법자”로서 “인민의 소리를 듣고 정치를 했다”라고 평가하며, 이 시기의 정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로 규정한다. 그리고 ‘공화 헌법의 예치’를 정전제, 군산제와 함께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핵심이자 서구가 취해야 할 것으로, 도래할 미래의 태평시대의 정치철학을 위해 동서의 정치철학을 조제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핵심 요소라고 여긴다.<sup>51)</sup>

전병훈이 요·순·주공 시기에 행해진 예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로 명명한 까닭은 당시에 공화, 민주, 입헌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실제 정치 속에서 그러한 가치가 수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화 헌법의 예치’는 그가 서구의 공화, 민주, 입헌의 가치를 요순과 주공의 정치 속에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한 것으로 역사적인 해석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는 사실상 동서 정치철학이 조제된 결과로서 서구의 공화, 민주, 입헌의 가치와 결합된 예치다. 하지만 공화, 민주, 헌법의 이념이 부여된 만큼, ‘공화 헌법의 예치’에는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기능하는 전통 예치의 의미장은 사라지고, 주권을 가진 개개인의 사회적 합의와 담론을 통해 형성된 사회 질서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된다. 이렇게 새롭게 정초된 ‘공화 헌법의 예치’는 도덕과 예에 바탕한 사

50) 주공의 예치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대승, 앞의 논문(2023), 305-313 참조.

51) 「政治哲學」, 「緒論」, “論世之士, 或以堯舜三代, 指爲君主之治, 殊不知堯舜周公, 皆聽民爲政, 以立共和憲法之禮治, 啓萬世之道德文明之祖法者也. … 東必取西, 不亦宜乎? 惟西則尙昧井田禮治之制, 此可以取東以合治一爐. 如是調劑, 則宇內之政治, 將臻乎兼聖一統. 和平大同之郵隆, 復見刑措不用, 至德之曙光, 天地之能事畢矣! 烏乎!”

회규범으로서 이상사회의 정치 시스템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다음으로 사회·경제 측면에서 전병훈은 정전법을 통한 균산을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양을 강조한다. 주지하듯이 정전제는 토지를 ‘정(井)’자 형태로 구분하여, 중앙 1경(頃)의 토지는 공전(公田)으로 삼아 공동 경작하고, 나머지 8경은 사전(私田)으로 여덟 가구에 고르게 분배하여 경작하게 하는 토지제도다. 이는 전통적으로 서주(西周) 초에 실시되었다고 여겨졌고, 맹자에 의해 왕도를 행하고 인정을 베푸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정전제가 서주 초에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정전제를 수행한 사회는 전통 시기 지식인들이 갈망한 이상사회로 여겨졌다.<sup>53)</sup> 이 때문에 정전제는 유교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요청되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식 있는 경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호출되고 그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었다.<sup>54)</sup>

조선의 유학자들 역시 정전제를 중시하면서 그 제도에 대해 논했는데, 전병훈은 「정치철학」편에서 정전제를 논한 조선 유학자들을 거론한다. 그는 이이가 공안(貢案) 개혁과 정전제의 편제를 논한 것을 “대동 통일하는 민주 세상”에서도 취할 수 있는 것이라 극찬하고,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주례』 이후 동아시아에서 처음 나온 정치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이 책에서 논한 정전제는 정미하고 상세해서 “장차 지극한 치세에서 반드시 모범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정약용의 『방례초본』을 전문적인 정치서로 평가하고, 유치범(兪致範)의 『일신록(一畝錄)』 역시 정전제를 근본 취지로 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모두 균산의 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훌륭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sup>55)</sup> 조선 유학자들의 정전제 논의는

52) ‘공화 헌법의 예치’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대승, 앞의 논문(2023), 313-319 참조

53) 김한규, 「중국의 이상 사회 건설」, 『남도문화연구』 17, 2009, 10-11 참조.

54) 함영대, 「17-18세기 조선맹자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정전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학문화회』 84, 2022, 194.

55) 「政治哲學」, 제30장, “栗谷先生誠有政治學識. 其論貢案之不善, 井制之編製(因有明廷請尙而

주로 경제사상과 관련되는데, 전병훈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의 스승(박문일)의 스승이었던 이항로(李恒老) 역시 경제문제에 있어 정전제를 중시했다. 이항로는 정전제를 통해 “균산(均産)과 균분(均分)을 통해서 이상적인 평등사회(平等社會)를 실현” 하고, “지주들의 대토지 겸병을 개선하고 병농 일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부강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고 평가된다.<sup>56)</sup>

전병훈 역시 이상의 유학자들처럼 균산을 위한 제도로서 정전제를 중시한다. 그는 우임금이 행했다는 정전법인 구정법(邱井法)에서부터 맹자가 논한 정전과 이후 중국의 토지 조세 제도 변천사 및 정전 관련 그림 등까지 기술하면서 정전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논한다.<sup>57)</sup> 그는 당시 세상에서 정전제를 회복하려 한다면 사람들이 황당하다며 웃을 것이라며, 정전제가 구시대 토지제도로 여겨지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전제를 시행하여 “인민의 재산을 균등히 하지 않는다면 단지 헛된 말의 선정일 뿐”으로서 지극한 정치에 이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sup>58)</sup> 정전제의 시행은 통치자들이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sup>59)</sup> 20세기 초 당대에 “전기·통신·선박·차량이 만국에 교통하며 사회 균산의 설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전병훈은 “장차 세계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될 조짐이 이미 열린 것”이라고 여겼다.<sup>60)</sup> 그는 자신이 정전제의 대략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당시에 대변에 행해지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세상을

---

製進) 可以見其範圍之包涵者, 非徒爲君治時代之罕聞, 而將大同一統民主之世, 亦何可不取乎. 嗚呼! 盛哉. … 朝鮮柳儒溪先生(馨遠), 道學通儒也. 專治政治經濟之學, 編製『儒溪隨錄』(十四卷). 博極經傳子集歷代沿革, 而取舍損益, 以折衷之. 不特一王一國之可以取法者也, 是乃周禮以後, 東亞之始出政治專家, 不亦甚貴重哉! 其編次先敘井田之制, 極其精詳, 將必爲至治世之取法者, 而今不遺盡探也. 又有丁茶山(若鏞氏)『邦禮草本』書, 亦政治專門學, 而『一晒錄』(俞致範著)均以井田爲主旨者, 同出於均産之仁心也. 噫哉!”

56) 이항로의 정전제 주장과 그 함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박성순, 「華西 李恒老의 井田制 주장과 그 含意」, 『동양고전연구』 48, 동양고전학회, 2012 참조, 그리고 인용문은 204-218.

57) 정전제 관련 내용은 「정치철학」 편 제5장에서 상세히 다뤄진다. 전병훈, 앞의 책(1983), 256-268.

58) 「政治哲學」, 제5장, “處今之世, 欲復井田之制, 孰不笑其迂闊乎? 然不行此制, 以均民産, 則徒言善政而已, 安能進於至治乎?”

59) 「政治哲學」, 제6장, “嗚乎! 在上之君相, 實有此至仁至公之心, 然後可以議舉井制矣乎.”

60) 「政治哲學」, 결론(12~13장 사이), “揆以人事, 則今電郵舟車, 交通萬國, 而社會均産之說盛行. 將必世界一統之兆朕已開者也.”

기다리는 것”으로 “지극한 덕과 큰 안목을 지닌 이”가 와서 모범으로 삼을 것으로 여긴다.<sup>61)</sup>

사회·경제 측면에서 전병훈이 중시한 또 다른 사항은 사회적 약자의 부양이다. ‘세계정부헌법’ 제6조에서는 이상사회에서 기구를 설치해 노약자, 불치병자, 무연고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부양을 언급한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 부양에 대한 논의는 「예운」 대동설에 바탕을 둔다. 「예운」 대동설에서는 큰 도가 행해지면서 천하를 공공의 산물로 여기는 시기의 ‘대동(大同)’ 세상을 기술하는데,<sup>62)</sup> 대동설의 내용은 ‘통치권력의 공공성 확보’, ‘직업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논한 것으로 평가된다.<sup>63)</sup>

전병훈은 「예운」 대동설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 논하면서 “큰 도의 정치는 그 지극히 공정하다. 세계가 대동하고 민주 공화를 하면 우의가 진실로 형제와 같아 노인을 봉양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공적으로 부양한다. 네 가지 궁한 처지의 인민들이 부양받는 곳이 있어 천하에 한 사람도 마땅한 거처를 얻지 못하는 이가 없고 도적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곧 지극한 치세이자 화평한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이는 요·순과 주공의 정치보다 더 지극한 것이자 성인이 미래 세상에 바란 것으로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 역시 이와 동일한 뜻이라고 말한다.<sup>64)</sup> 이는 전병훈 역시 사회적 약자를 부양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1) 『政治哲學』, 제5장, “然余所以載明井田概略于此者, 實非遽望於今日, 而留待宇內大一統之世, 安知無至德大服人者, 必來取法乎!”

62)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要親其親, 不要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要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要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63) 대동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김상현, 「유교 이상사회론에 대한 연구-『예기』 예운편의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78, 2017, 234-242 참조.

64) 『政治哲學』, 제14장, “大道之治, 極其至公也. 世界大同, 民主共和, 誼固兄弟, 設養老育子院而公養之. 四窮之民, 皆有所養. 天下無一民不得其所, 盜賊不興, 是乃至治之世, 和平之樂也. 堯舜周公至治之化, 何以加此乎? 然此則聖人所以有望於來世者, 即康德所謂世界設一中央政府, 浸兵輯和, 永樂和平之論, 亦此意也.”

## V. 나가는 말

20세기 초 타국에서 생활하는 ‘경계 밖 무리’, 재중 한인 디아스포라는 민족의 독립과 미래를 고민하며 새로운 정치 형태를 다각적으로 탐색한다. 재중 한인은 “한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지향에 따라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이상사회를 꿈꾼다. 근대 동아시아 이상사회론은, 「예운」의 대동설과 서구 유토피아론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논한, 강유위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중 한인의 활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이 지향하던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는 중국 근대 이상사회 담론의 자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중 한인 전병훈은 중국 근대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펼친다.

동아시아 전근대 대동사상 가운데 하나인 「예운」의 대동설은 고대 원시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하는 상고주의적 시각을 지닌다. 반면 중국 근대 대동사상은 서구의 이상사회론을 수용하여 전통 시기와 다른 사상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역사는 진보하여 이상사회로 나아간다는 역사목적론이 깔린 진보주의는 중국 근대 대동사상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sup>65)</sup> 전통 대동사상의 상고주의나 근대 대동사상의 진보주의 역사관과 달리, 전병훈은 소용의 원회운세설에 바탕한 자신의 시간관·역사관과 당대 국제사회 정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명이 극치에 이른 ‘오회정중’의 이상사회가 2백 년 이내 도래할 것으로 여긴다. 전병훈에게 이상사회는 돌아오지 않는 원시의 이상향도,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닌, 도래할 미래다.

65) 이연도는 중국 근대 대동사상이 서구 진보주의의 토대에서 건립되었음을 지적한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완벽한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목적론의 전제가 깔린 진보의 관념과 진보주의는 중국이 사회 이상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연도, 앞의 책(2018), 50-51.

전병훈은 ‘세계정부헌법’을 통해 이상사회에 갖추어야 할 정부 형태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해 적시한다. 전병훈은 세계주의적인 시각으로 이상사회는 세계 각 국가가 독립적이고 평등한 자격으로 연합체를 이룬 ‘세계통일공화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주의 시각으로 이상사회 정부를 구성한 점은 기본적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중국 근대 대동사상을 논한 강유위의 시각과 유사하다. 하지만 강유위와 달리 전병훈은 세계정부의 총통이 종신제 선출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인사들의 도덕성 구비와 도교 내단학 수행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병훈은 도덕 본성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도덕 문명 정부를 그린다.

경제·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전병훈은 정전제를 통한 부의 평등한 분배를 바탕으로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 유학자들처럼 정전제를 통한 균산을 중시하고, 「예운」 대동설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부양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강조한다. 이처럼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시각은 중국 근대 대동사상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정치 시스템 측면에서 제시한 ‘공화 헌법의 예치’는 동양의 예치와 서양의 공화, 민주, 입헌의 정치철학적 요소가 조제된 전병훈만의 독특한 사유다. 이는 신분 질서를 토대로 한 전통 예치를 자유로운 개인의 합의에 바탕한 사회규범으로 정초함으로써, 도덕 공동체의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근대 대동사상의 활로를 연 강유위는 자신과 다른 대동사상을 논했음에도 전병훈의 사유를 상찬한다. 그는 전병훈이 정치를 논할 때는 『주례』에 근본을 두고 양생을 논할 때는 도가의 대의를 거론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정치가 혼란하고 물질이 조악한 가운데 존귀한 논의의 정수를 얻으니, 참으로 빈 골짜기에 발자욱 소리 울리는 듯하다. 공경해 우러르길 그칠 수 없다.”라고 극찬한다. 아울러 아직 이상세계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세계

가 대동한 뒤에 도술이 절로 크게 유행하고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며 전병훈의 시각을 지지한다.<sup>66)</sup>

전병훈은 동서고금 정치철학의 조제를 통해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꿨다. 그가 그린 이상사회는 세계 각 국가가 독립적이고 평등한 자격으로 연합체를 이룬 세계정부 체제 속에서 도덕 본성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이룬 개인들의 합의에 따라 정치가 시행되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도덕 문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는 이상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이때 구현될 정치철학을 기획했지만, 이상세계의 도래와 그의 기획이 지닌 현실성 여부는 불분명하다. 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우승열패를 논하고 공리와 권리를 다투며 전쟁을 일으킨다. 냉혹한 현실 정치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 백여 년 이내 그가 그린 미래가 도래할지는 의문이다. 그의 기획은 분명 낭만적이고 이상적이다.

정치철학은 분명 현실 정치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바탕을 뒀야 하겠지만, 때론 현실을 추동하는 이상을 꿈꾸고 이를 위한 방안을 기획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획이 때로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는 실현되기도 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구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점이 유효한 사례다. 전병훈은 ‘오회정중’의 새 시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운영의 버팀목이 될 정치철학의 초안을 기획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 인종과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하는 공존과 평화, 대동의 미래 세계를 상상”하며, “동서양과 만나고 동서양의 학술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설계” 했다.<sup>67)</sup> ‘조선과 중화’

66) 『精神哲學通編』, 「畧附諸家評言序」, “康公有爲(號南海, 孔教會長)曰, 伏讀大著, 言政治則必根周禮之本, 言養生則必舉道家之大義微奧. 當今政治之惡, 物質之粗, 得尊論之精微, 眞空谷足音也. 敬仰不已. 又曰, 大地大同之後, 道術自大行而日新, 今未到其時也.”

67) 이 부분은 전병훈의 정치철학에 대한 백민정의 평가를 전용했다. 백민정은 전병훈이 정치철학에서 제시한 새 시대의 정치적 주체가 개인의 권리나 이권을 위해 투쟁하는 서구근대적 맥락의 경쟁적 주체가 아님을 지적한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경계, 인종과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하는 공존과 평화, 대동의 미래 세계를 상상하는 인문적 주체는, 전병훈의 저작에서 경계 너머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동서고금의 사유를 조제<sup>68)</sup>하여 ‘경계 너머’의 사유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전병훈의 시도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철학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세계상을 기획하고 포착하는 철학의 주체로 부상”한다고 말하고, “내성적인 자기수련의 과정, 그리고 성인의 세상 천지공사의 위업을 넘어 동서양과 만나고 동서양의 학술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설계하는 자, 그런 존재들의 보편적 사유 운동을 그는 철학이라는 표제어로 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라며 전병훈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백민정, 앞의 논문(2023), 155.

68) 김성환에 따르면, 전병훈에게서 ‘조제’는 “이질적인 것들의 차이를 토대로, 각각의 구성 요소를 맞바꿔 상호보완하며 더 나아가 이를 한데 녹여 구조하여 어디에나 두루 쓰이고 막힘없이 통하는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조제는 “탈경계화한 이질적인 것들을 호환·상보하고 그 정수를 다시 합야·통창하여 원만하게 다 살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앞의 논문(2023), 198-212.

### 참고문헌

- 전병훈 저,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3.
- 강유위 지음, 이성애 옮김, 『대동서』, 을유문화사, 2006.
- 금장태, 『한국근대사상의 도전』, 전통문화연구회, 1995.
- 김미연, 「유토피아 ‘다시 쓰기’-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중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0, 2020.
- 김상현, 「유교 이상사회론에 대한 연구-『예기』 예운편의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78, 2017.
- 김성환, 『우주의 정오』, 소나무, 2016.
- 김성환, 「전병훈의 조제론 연구-탈경계의 정신문명을 향한 철학적 모색」, 『도교문화연구』 59, 한국도교문화학회, 2023.
- 김제란, 「양계초 사상에 나타난 서학 수용의 일단면-유식불교를 통한 칸트의 재해석」, 『한국사상과 문화』 4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 김지연, 「강유위의 대동사상-『대동서』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23, 2004.
- 김춘선, 『재중 한인 이주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8.
- 김한규, 「중국의 이상 사회 건설」, 『남도문화연구』 17, 2009.
- 김형석, 「근대전환기 도교전통의 모색-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보이는 근대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2, 2016.
- 박성순, 「華西 李恒老의 井田制 주장과 그 含意」, 『동양고전연구』 48, 동양고전학회, 2012.
- 백민정, 「전병훈 『정신철학통편의』의 예치론과 정치사상-정약용 경세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9, 한국철학사연구회, 2023.
- 선우현, 「끝없는 발전의 도정으로서 유토피아-새로운 유티포아론의 모색」,

- 『시대와 철학』 11(1), 2000.
- 소진형, 「조선 지식인의 서양 번역서 독해방식: 전병훈 『정신철학통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70, 2022.
- 손세호,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면서』를 뒤돌아보며」, 『미국사연구』 27, 2008.
- 손염홍,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역사공간, 2010.
- 송영배, 「강유위 인의 철학과 대동 유토피아」, 『철학연구』 48, 2013.
- 신주백, 「1920, 30年代 北京에서의 韓人 民族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 에드워드 벨러지 지음, 김혜진 옮김, 『뒤돌아보며 : 2000년에 1887년을』, 아고라, 2014.
- 이경배 외, 『동서양의 인간이해』, 흐름, 2022.
- 이대승, 「20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예치론-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54, 2023.
-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 출판부, 1998.
- 이연도, 「대동과 유토피아: 강유위 사상의 특색」, 『한국철학논집』 18, 2009.
- 이연도,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 산지니, 2018.
- 이종수 편저, 『유토피아: 낙원에 대한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 다산출판사, 2017.
-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영구 평화론』, 서광사, 2013.
- 임채우, 『완역 정신철학통편』, 인월담, 2021.
- 陳正炎·林其鏞 지음, 이성규 옮김,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9.
- 토마스 모어 지음, 주경철 옮김, 『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07.
- 한정길, 「서우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나타난 동서 철학 접변 양상」,

『동서사상의 회통』, 동과서, 2019.

한형조 외, 『전통 예교와 시민 윤리』, 청계, 2001.

함영대, 「17-18세기 조선맹자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정전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학문학회』 84, 2022.

홍원식, 『동도관의 변화로 본 한국 근대철학』, 예문서원, 2016.

황종원·허재영·김경남·강미정,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 경진출판, 2019.

康有爲 撰, 姜義華·張榮華 編校, 『康有爲全集』 第7集, 中華人民大學出版社, 2007.

梁启超 著, 『飲冰室合集』 第一冊, 中華書局, 1988.

*Abstract*

**The Theory of Ideal Society of Jeon Byunghoon, a Korean in China in the early 20th Century**

Lee, Dae-seung (Jeonju Univ.)

This article analyzes the ideal society theory of Korean Jeon Byunghoon in China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examines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Jeon Byunghoon develops a different new thought while being influenced by the modern Chinese Datong Thought. Unlike the appeal of traditional Datong Thought and the progressive view of modern Daedong Thought, he believes that an ideal society that has reached the height of civilization will arrive within 200 years due to his view of time, view of history, and expectations for international circumstances. He presents the form of government an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should be equipped in an ideal society through the “World Unification Republican Government Constitution.” The “World Unification Republican Government” proposed as a form of ideal society government is based on Kant’s theory of permanent peace and is similar to the view of modern Chinese Datong Thought of Kang Youwei (康有爲). However, unlike Kang Kang Youwei, he is characterized by discussing the world government president as a life-long elected office and discussing the need for the morality of world government figures and the practice of Daoism. In terms of economy and society, Jeon Byunghoon emphasizes equality and welfare through power outages and equal production, which is in line with modern Chinese Datong Thought. However, the “Propriety-politics of the politics of the republican constitution Propriety-politics” proposed in terms of the political system is a unique reason for Jeon Byunghoon, whose political philosophical elements of the East’s Propriety-politics and the West’s republican,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are prepared.

Jeon Byunghoon dreamed of a new ideal world through the preparation of political philosophy from East and West. He has an important philosophical

significance in that he broke down the boundaries of “Chosun and Chinese,” “Tradition and Modern,” “Oriental and Western,” and planned “Beyond the Boundary” by preparing the thoughts of the East and the West.

*Key Words:* Jeon Byunghoon (全秉薰), Jeongshin Cheolhak Tongpeon (精神哲學通編), World Unification Republican Government Constitution (世界統一共和政府憲法), Datong Thought (大同思想, the Thought of Great Harmony), Ideal Social Theory